

사전등록 지난해 3배 '증가' 불교박람회 동참열기 뜨겁다

파워블로거 'B서포터즈' 온라인 홍보 '활발'

오는 3월6일 개막하는 '2014 불교박람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동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5만3000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불교를 대표하는 전시행사로서 우뚝 솟은 불교박람회는 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불자를 비롯한 일반사회에까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B서포터즈'와 함께 2014 불교박람회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인스님이 등장한 버스 광고.

불교박람회에 미리 참가 신청을 한 사전등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행사 개막 전날까지 1700명이 등록한 2013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숫자다. 이같은 숫자는 2월 중순에 달성된 것이라 시간이 갈수록 등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등록은 불교박람회 공식 사이트(www.bexpo.kr)에서 할 수 있다. 박람회 사이트 방문객도 초반 100여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최대 500명까지 늘어났다.

박람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홍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힐링 아이콘' 해인스님이 등장하는 버스 광고가 현재 진행되며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각인시키고 있으며, 2000여 사찰과 경기도 주요 관공서 660곳에 포스터가 붙었다. 특히 경기도는 도청 차원에서 언론 홍보와 함께 도청과 의왕플랫폼 전광판

에 박람회 개막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도청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 홍보동영상과 배너광고를 걸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2014 불교박람회 B서포터즈'가 핵심 동력이다. 지난 13일 발매한 B(Buddhism Expo 2014)서포터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파워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 20명과 대학생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주부 서포터즈는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일일방문객을 자랑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박람회 홍보글을 게시하고, 대학생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입소문 홍보와 더불어 UCC 동영상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B서포터즈는 '불교'라는 종교성을 뛰어넘어 일반인의 눈높이로 박람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

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러브마미'라는 아이디(ID)를 쓰는 주부 서포터는 박람회를 소개하면서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처럼 불교를 가깝게 생각하고 만나보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음 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기회가 될 것 같다", "꼭 가봤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불교박람회는 스마트폰 모바일 페이지(www.bexpo.kr/m)로도 즐길 수 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가 주관하는 2014 불교박람회는 3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서울 학여울역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7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할머니 집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방문은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종로구 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총무원장 스님 자비니눔 홀로사는 할머니 방문 노인복지관 실무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홀로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기원하며 온정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홀로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 환담을 나누며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했다.

2월 '자비니눔 방문' 일환으로 진

행된 이날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은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종로구 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총무원 사회복지장 설안스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 등이 동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홀로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둘러본 뒤, 지원금을 전달하

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방문에 동행한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할머니를 위해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할머니 역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의 방문에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집에 방문해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선물까지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사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관장 정관스

님으로부터 시설 및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아리 활동 현장, 체력단련실 등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복지관 사무실을 찾아 지역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기금 500만원에 복지관에서 전달하며 “관장 스님이 고생이 많으시다. 앞으로도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동국대 지난해 309억원 모금

“개교 이래 최고액” 기부자 6000여명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지난 2013년 총 309억원을 모금해 개교 이래 최고 모금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대학발전기금 모금액이 현금 192억원(입금액 기준), 부동산 등 현물기부액 117억원(만해마을 시설일체와 기타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을 기록해 개교 이래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다.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KCC 정상영 명예회장으로 일산 바이오

메디캠퍼스 바이오관 건립을 위해 사채 100억원을 쾌척했다. 만해마을 상설천선학회 이사장 무산스님은 인재군에 위치한 만해마을 건물과 부대시설 일체를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부산 해림사 동림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을 위해 12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했으며, 부산 기장군 영일암 주지 현웅스님도 인재양성을 위해 씨달라며 자신의 전 재산인 6억원을 보시했다. 기부

자들도 2008년 2191명에서 2013년 6676명으로 세 배 이상 뛰여 저변이 확대됐다.

올해 개교 108주년을 맞이한 동국대는 모금실적을 바탕으로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을 올해 완공하고, 제2기숙사 건립, 총무로 영상센터 개발, 해화문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교육 연구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 선출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수처우 개선' 당부 '인재양성 최선' 약속

제6대 중앙승가대 총장에 전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태원스님이 2012년 9월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하고 1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신임 총장 원행스님은 “훌륭한 교수님과 선배, 동문들이 계신데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소임을 주셨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스님들 교육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고급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원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사회를 마친 직후 임명장을 전달하고 학교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교수들 대우가 최우선

우 정도로 열약하다”며 “종단과 동문, 기획실이 신경 써 교수 처우 개선과 예산 마련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해인승가대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을 마친 원행스님은 중앙종회의원과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승가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현정론에 관한 연구-정책 논증모형에 의한 접근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집 원장 등을 맡고 있다.

홍다영 기자

지면안내

쌍용차 노동자들이 총무원장 스님을 찾은 이유 2면

기독교인의 상징 사찰목판 '현실' 5면



진흥원 본지 불교방송 신년대법회 지상중계 12~13면

www.Deung.com
www.연등.kr

전통의 우리등이며 관리하기도 편리한

전통 딸각등을 답시다

■ 딸각접등(고급형)

원터치로 한번에 쉽게 펴지고 접혀짐. 고급스런 디자인, 보관용이

■ 연꽃등(고급형)

우아하게 자동으로 펼쳐지고 자동으로 접혀집니다. 장엄등으로는 최고입니다. 비 바람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년 12달 환하게 밝혀 줍니다.

■ 딸각주름등(보급형)

아름다운 전통미를 재현. 특허등록원, 의장등록원, 중국특허등록원

수많은 노력과 염원 속에 탄생한 등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대의 등제작 공장이며 등관련 최다 특허 등록 보유업체입니다.

중국 특허 등록원

■ 주요생산품목 ■

딸각접등, 딸각주름등, 연꽃등, 청사초롱등, 만월등, 전선, 특수등 주문 전문

우림산업 제/품/문/의 (031)462-4848

황금연등

골드(금)가 좋은 점

황금색이 변하지 않고 쉽게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급하고 품격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연등이 아닙니다. 골드(금)보다 더 황금 같습니니다. 연등의 최고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자책 황금빛이 나는 황금등입니다. 법당에는 꼭 황금등을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문 생산합니다. 주문 결제 후 7일내 발송

황금등 사업부 010-9240-4848
농협 : 751081-51-088024(권태희)